

일본 도쿄 타카오야마학원 사례를 통한 유휴교실의 도심 대안학교로의 활용 가능성

A Possibility to Alternative School with Unused Classrooms of
Downtown by Takaoyama Free School in Tokyo, Japan

정진주*
Jung, Jin-Ju

1. 도심 학교 내 유휴교실

1980년대 이후 이농현상에 의한 농촌지역의 학생수 감소는 유휴교실의 발생에 이어 폐교로 이어졌고, 도시에서도 인구집중으로 인한 과밀학급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소도시의 경우 신도심의 개발 등으로 도심 거주자들의 거주지 이동이 도심의 공동화로 이어져 구도심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별 유휴교실을 증가시켰다.

중소도시의 도심에 위치한 학교별 유휴교실의 발생은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수반하여 교실의 환경 개선 및 확충 등 시설여건이 향상되는 교육환경 변화의 계기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수 감소로 인한 행·재정적 지원의 감소 및 운영방안 모색 부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유휴교실의 효과적인 활용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현재 문화, 체육, 복지시설과의 연계 및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위한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움직임이 강조되며, 이를 위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신축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 학교 내 유휴교실의 다변화 및 다용도화를 통한 복합화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며, 대안학교로의 시설환경 공유 및 전환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안학교의 현황

2007년 7월 발간된 대안교육백서 1997~2007은 현재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현 주소 및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율적인 참고서이다. 2007년까지의 통계수치로 볼 때 현재 전국 대안학교의 수는 98개교(전일제 대안학교만을 대상)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인가형 대안학교(위탁형 불포함)는 29개교이다.

대안학교는 특성화 학교 및 위탁형(전일제)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전원형·도시형 중등 대안학교 및 초등 대안학교(공부방, 계절학교, 방과후학교, 작은 학교운동 등), 통합형 대안학교 등의 비인가형 대안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¹⁾

현재 우리나라 대안학교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약 40% : 60%의 도농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형 대안학교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학교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생태 및 노작교육과 공동체 생활을 추구했던 초기 단계의 대안학교들이 주로 농촌지역에 위치했던 것과는 달리, 학생 및 부모 스스로가 원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대응한 대안학교가 등

표 1. 2006 지역별 전국 대안학교 분포 현황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수	4	36	4	1	2	1	2	3	17	1	2	8	6	1	6	4	98

교육인적자원부, 대안교육백서 1997~2007, p.8, 2007. 7

* 정희원, 청주대 건축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1) 교육인적자원부, 대안교육백서 1997~2007, 2007. 7 정리

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²⁾

하지만,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를 볼 때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공교육으로 돌아가는 비율보다 상급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취업이나 사회진출보다는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변형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로, 도시형 대안학교의 증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안학교는 설립이념과 운영방식, 교육내용 등에서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본의 경우 학생들의 중도탈락 및 부등교 등의 교육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1980년대 이후 사립학교 주도(1990년대에는 공립학교도 등장)로 중도탈락자를 대상으로 연령대와 시기에 구애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 학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실태에 대처하고 개성의 신장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등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고, 이를 반영할 시설과 교육환경 등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³⁾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 인가된 학교 및 신설될 학교를 포함해 대안학교의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일본 도쿄 타카오야마학원의 대안학교로의 시설활용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 중소도시의 도심에 위치한 학교별 유휴교실의 대안학교로의 시설환경 공유 및 전환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일본 도쿄 타카오야마학원의 대안학교로의 시설활용⁴⁾

3.1 일본 프리스쿨의 의미

일본은 1980년대 들어 히키코모리(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사회 또는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증상 또는 아이)의 증가로 인해 심각해진 부등교 문제 역시 학생 개개인의 문제일 뿐 교육제도나 학교의 문제로 보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의 하나인 프리스쿨⁵⁾에 대해서도

공교육의 보완적인 학습의 장으로서만 인식했다. 1992년 일본 문부성은 대안교육시설의 출석 일수를 정규학교에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학교 탈락자들을 정규 학교에 복귀시킬 목적으로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문부과학성은 대안학교의 교육을 ‘홈스쿨링’으로 간주하여 학교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권 내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대안학교는 일반적으로 현 교육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alternative education school로 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모든 자율을 부여하는 제도와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free school이라는 개념을 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본의 대안학교 의미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타카오야마학원의 설립이념과 일반현황

일본 프리스쿨의 가장 큰 교육 및 운영특징은 학생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학생들 개인의 차이와 선호도를 인정하여 교사나 어른의 도움이 없어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겠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타카오야마학원도 제도권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이지메, 경도발달장애)으로 집단활동 안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해 삶에 자신을 갖거나 사회적인 자립을 재촉하는 것,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제도권 학교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타카오야마학원은 도쿄 근교 타마뉴타운에 위치해 있고, 기존 초등학교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점차 학생수 감소로 인해 학교의 유휴교실이 증가해 2003년부터 이 공간들을 프리스쿨로 활용하여 문부과학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통학거리가 멀거나 등교시간 준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

표 2. 타카오야마학원의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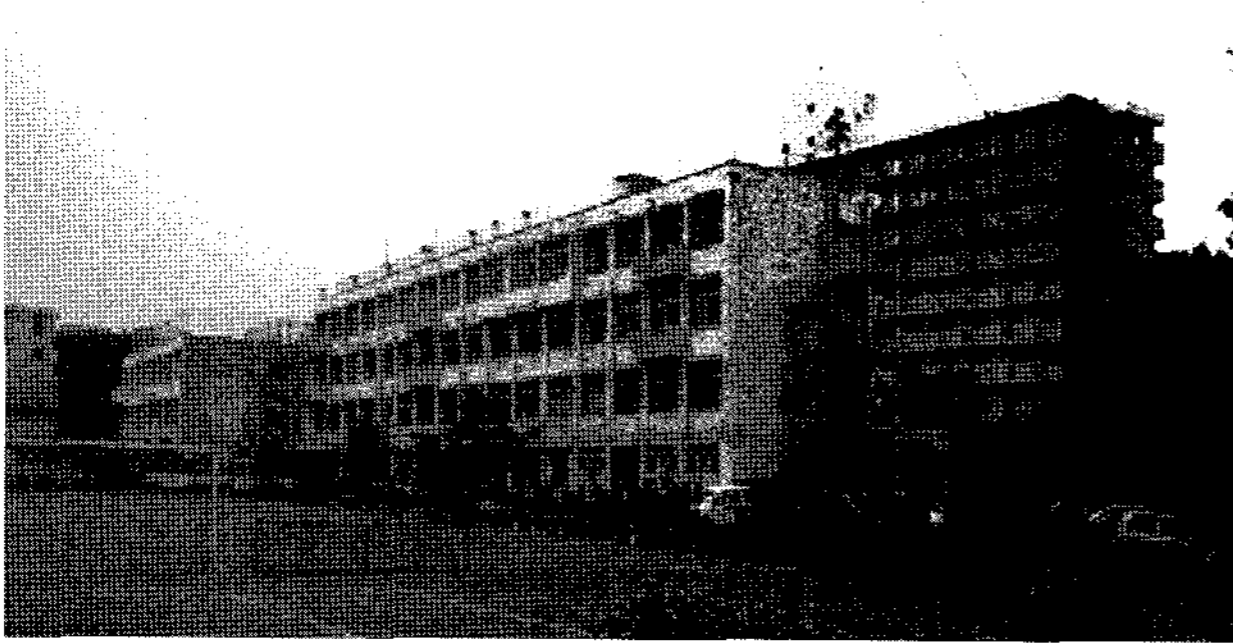
학교(개교)	타카오야마학원高尾山學園(2004)
주소	東京都八王子市館町 1097-30
학생수(명)	95(중등:82,고등:13)
홈페이지	edu.city.hachioji.tokyo.jp
담당자/연락처	엔도(エンドウさん)/042-666-9325

2) 대안학교의 배경, 의의, 종류,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은 많은 발표 자료들이 있으므로 본 내용에서는 가급적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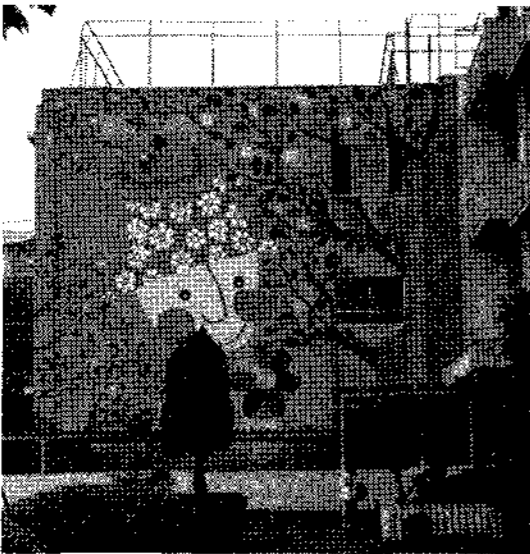
3) 대안학교와 관련된 연구동향(학위논문)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석사학위논문은 137편, 박사학위논문은 6편에 이르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교육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교육시설에 관련된 연구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4) 본 내용은 ‘일본 도쿄지역 프리스쿨사례의 시설이용현황조사 연구(교육시설, 2008. 1)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정리한 것임.

5) 일본의 프리스쿨은 영국의 섬머힐 학교처럼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지향한 사립학교를 지칭한 용어인 프리스쿨(free school)의 이념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전경(오른쪽 후면은 아파트)



대안학교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의 인지를 위한 외벽



운동장의 동굴놀이터

그림 1.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전경

주기 위해 9시 3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1교시의 수업도 학생 자유과목으로 운영한다. 수업시간도 짧게 진행되고 일주일에 22시간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1시간에 해야 할 분량이 많아지는데 내용을 늘리지 않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진행시킨다.

일본 내 일반적인 프리스쿨과 다른 점은 정규학교의 정규교과과정과 비교적 유사한 B코스라 불리는 교과과정을 신설해 학교를 오랫동안 쉬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베이직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고, 1주일에 최소 3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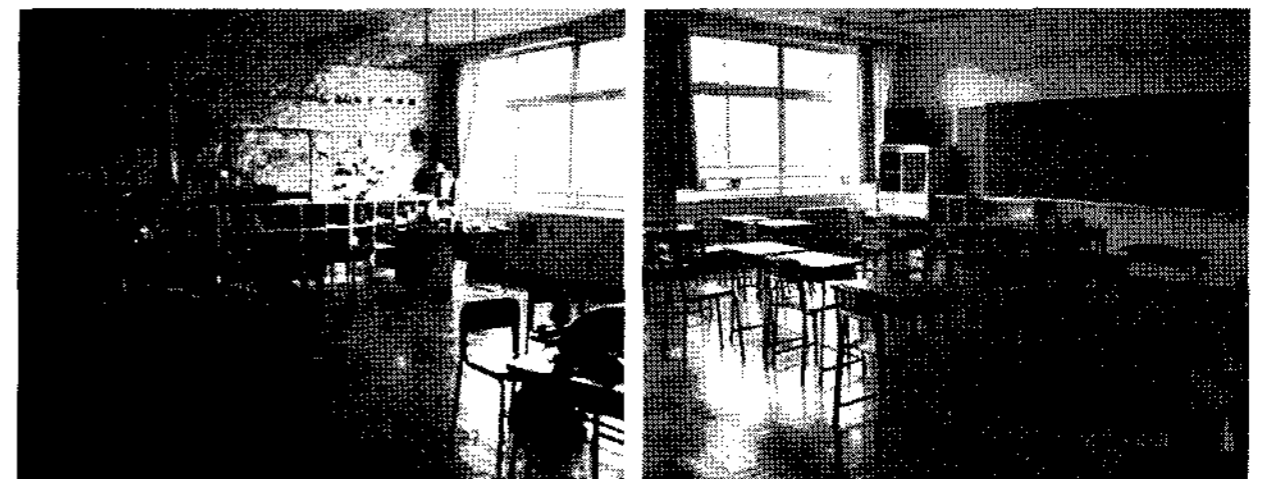
장기간 학교에 가지 않아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학습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경도발달장애아 등 학생들이 일단 학교에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놀이기구 및 다양한 오락시설을 갖춘 플레이룸을 갖추어 학교에 와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이고, 이 실에 들어가서 놀아도 되며 학교에 상주하는 카운슬러들이 학생들을 써포트한다.

또한, 편한 대화 상대자로서 상담자 역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과 이야기들을 해주는 20대의 젊은 학습보조원과 후생원을 상주시켜 운영하고 있다.

공간 조닝		실명
일반학교 전용공간	소학교	일반교실 3실
	중학교	일반교실 6실
공용공간	특별교실	기술실, 음악실, 이과실, 미술실, 가정과실, 도서실, 컴퓨터실, 각 교과 준비실, 도예실습실
	관리사무실	직원실, 방송실, 보건실, 주사실, 교장실, 응접실
매개공간		소그룹실 3실, 런치룸
대안학교(프리스쿨) 전용공간		상담실, 도움실, 제2학습실, 강사실(벌런티어실), 플레이룸, 보호자실, 예비실

그림 2.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공간 조닝



소학부6년 교실

중학부2년 교실

그림 3. 일반학교의 전용공간

3.3 유희교실의 대안학교(프리스쿨)로의 활용

타카오야마학원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유희교실을 대안학교(프리스쿨)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 그리고 두 학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공간으로 학교 전체 시설을 재배치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의 우측부를 일반학교 전용공간준으로, 좌측부를 대안학교의 전용공간준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 지역은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어 현재 중학부는 3학년 6개실로 운영되지만 소학부는 3개(4, 5, 6) 학년 3실로만 운영되고 있다. 중학부의 교실을 동일 층에 배치하기 위해 현재 1, 2학년의 교실이 대안학교 영역의 3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3학년이 졸업하면 영역별, 층별 조닝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두 학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군과 특별교실군의 배치에 있어, 직원실, 보건실, 방송실, 주사실, 교장실, 응접실 등의 관리사무실군에 속하는 공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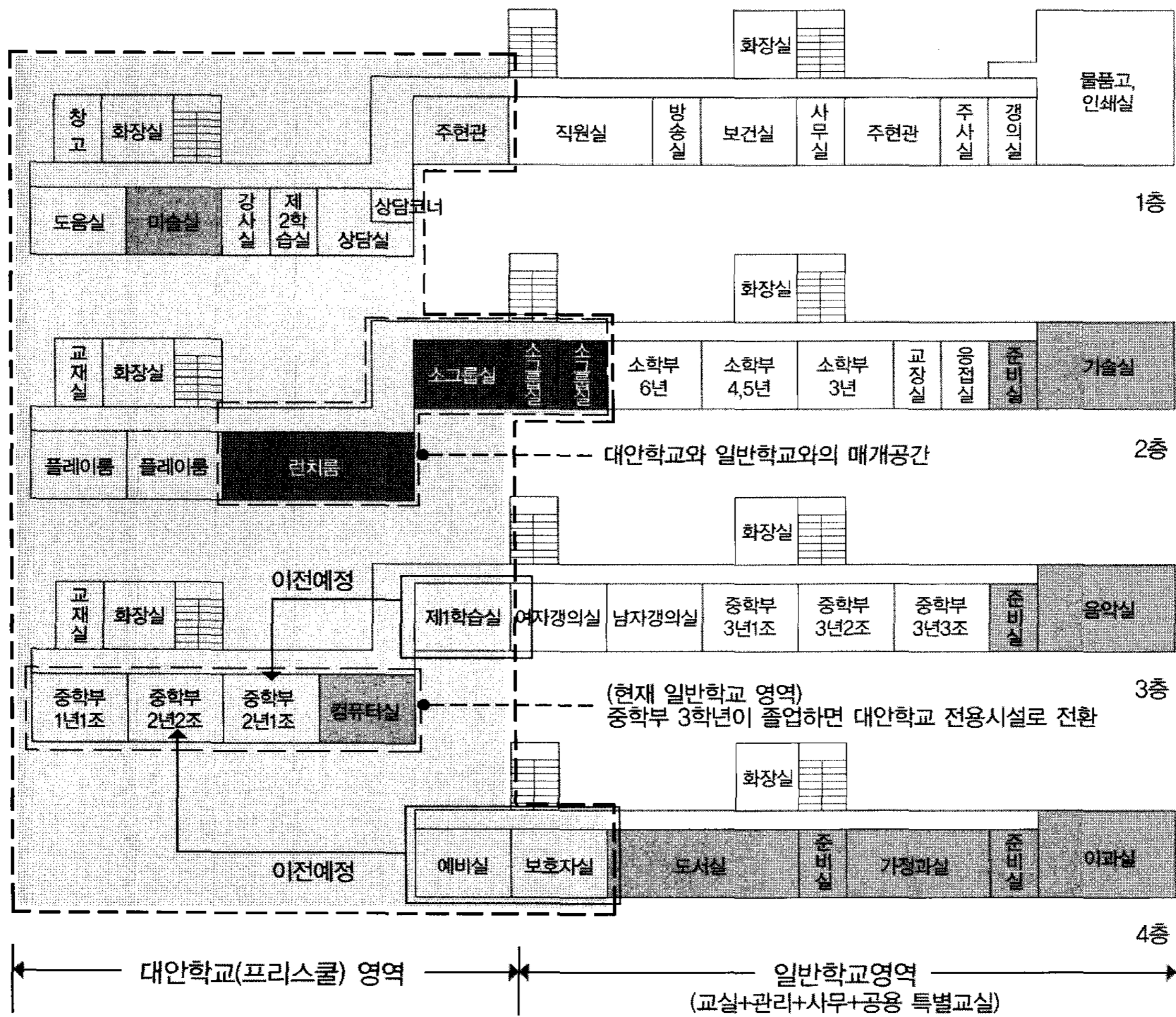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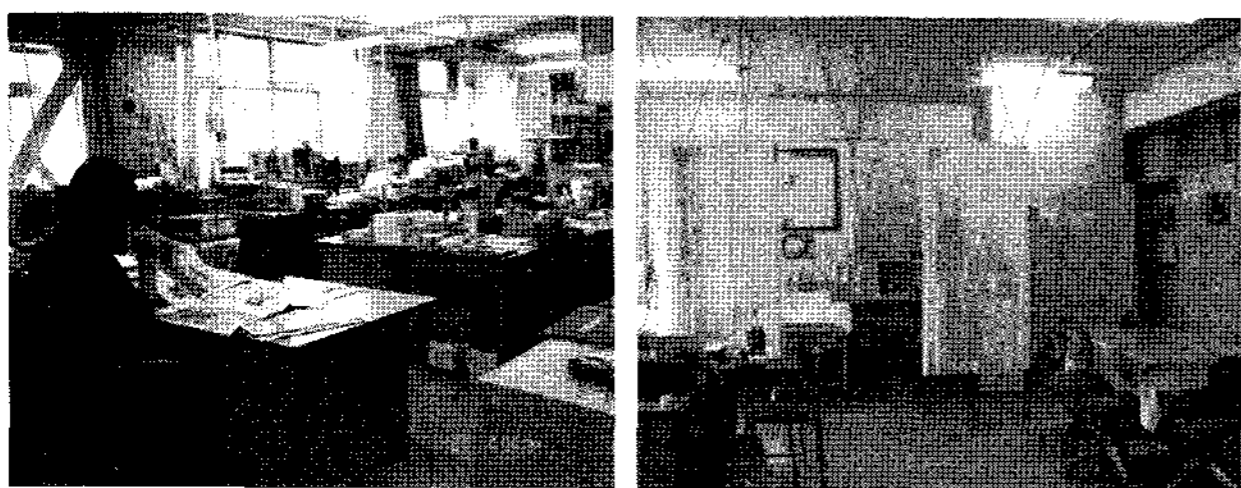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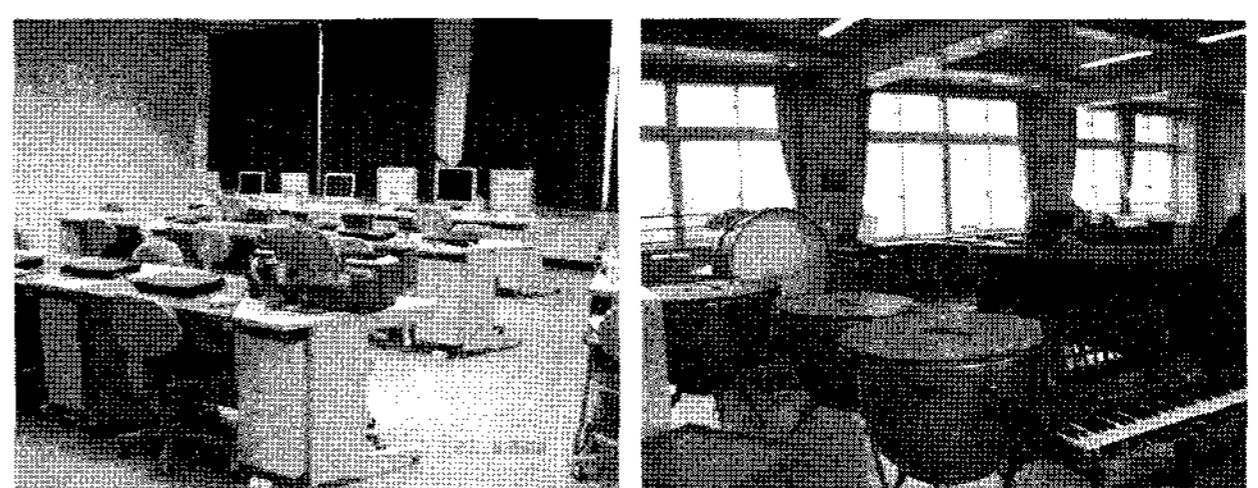


그림 4. 타카오야마학원의 층별/영역별 조닝



직원실 보건실

그림 5. 공용공간-관리사무실군



컴퓨터실 음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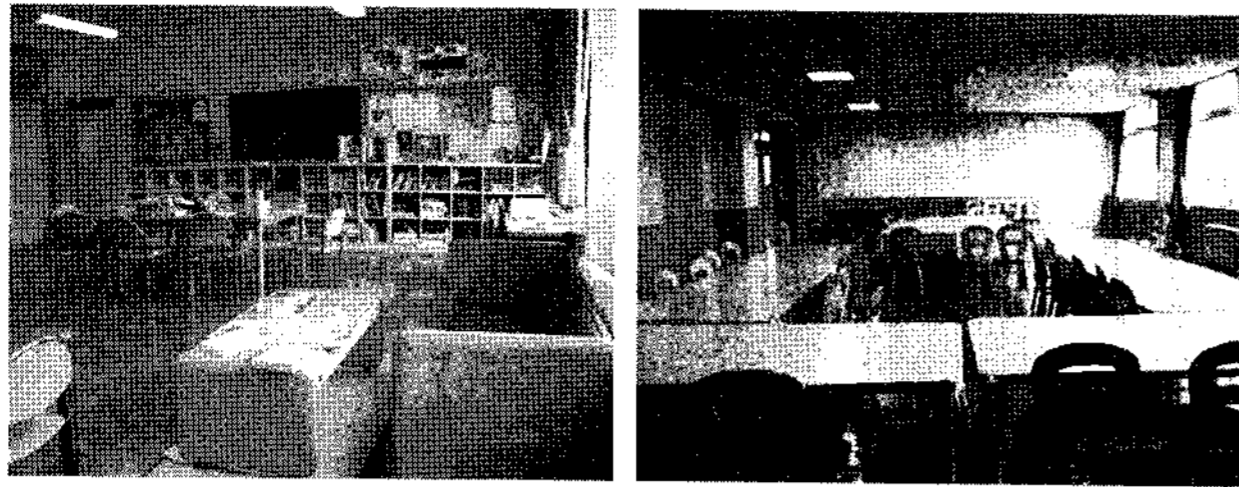
그림 6. 공용공간-특별교실군

기술실, 음악실, 이과실, 미술실, 가정과실, 각 교과 준비실의 특별교실군은 일반학교존에 위치시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였고, 컴퓨터실, 미술실, 도예실, 도서실 등은 대안학교존에 배치 또는 인접시켜 대안학교 학생들을 배려하고 있다.

또한, 두 학교급의 학생들을 교류시켜 줄 수 있는 매개 공간으로서 소그룹실(놀이와 게임 등 관심있는 사항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런치룸(상황에 따라 식사시간이 별도로 배정)을 2층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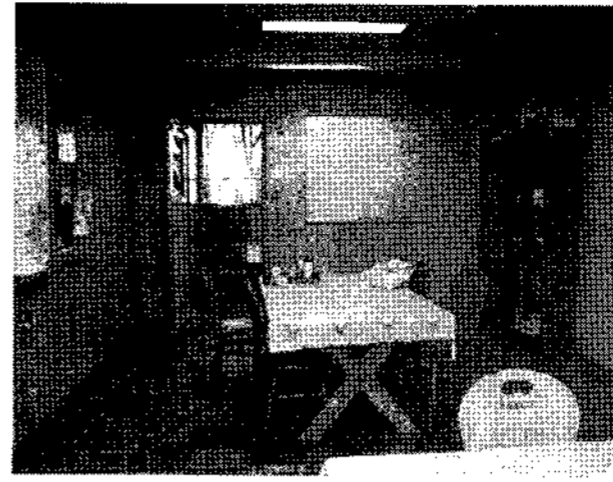
원칙적으로 일반학교의 학생들이 대안학교 전용공간존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별도 출입문이나 복도를 차단하고 있지는 않다.) 매개공간에서는 두 학교급의 학생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적응이 어려운 대안학교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매개공간은 대안학교(프리스쿨)의 학생들이 언젠가는 일반학교로 되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건물 내에서 두 학교급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배려해 주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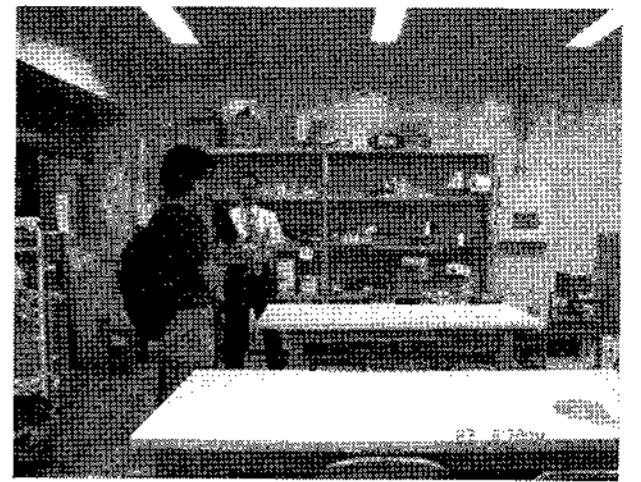


소그룹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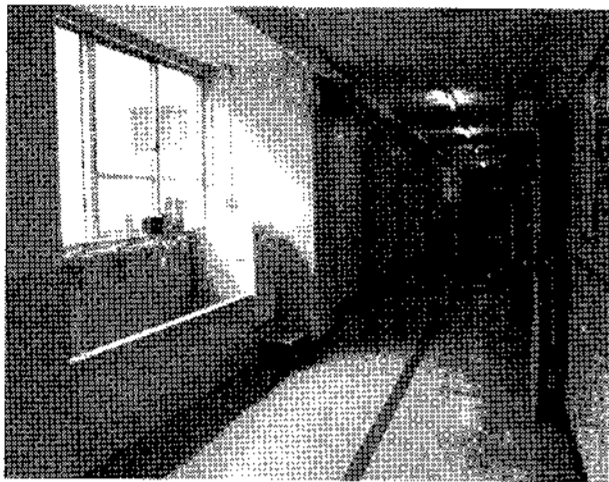
런치룸



개별상담실



학습도움실



일반학교존 복도



대안학교존 복도

그림 7. 매개공간 및 복도

는 곳이다. 대안학교(프리스쿨)의 전용공간으로는 개별·그룹상담실, 학습도움실, 제2학습실, 강사실(벌런티어실), 플레이룸, 보호자실, 예비실 등을 구성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4. 유휴교실의 대안학교로의 활용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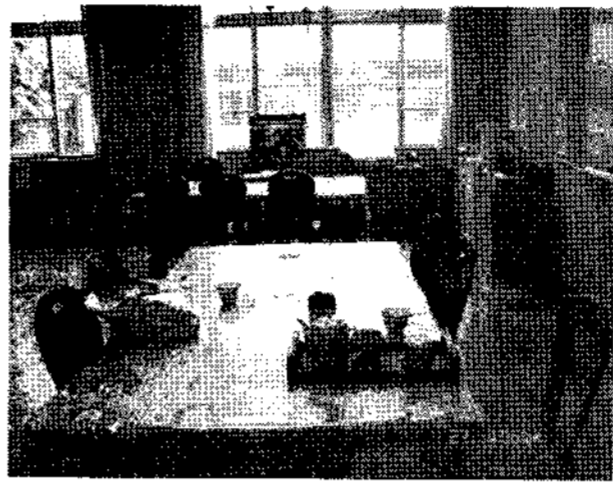
타카오야마학원은 집단활동 안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해 삶에 자신을 갖거나 자립교육을 위해 제도권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지매, 경도발달장애)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프리스쿨은 주로 부등교 학생들의 개인 생활권 내에서 자유로운 통학을 전제로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들을 제도권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로 도심에 집중되어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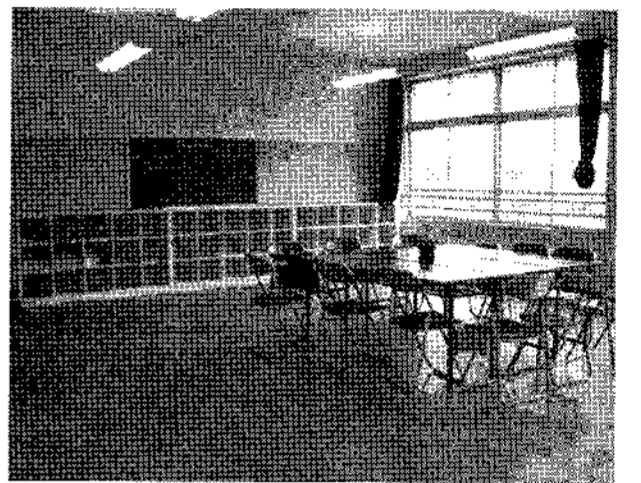
물론 우리의 도시에 위치한 인가형 대안학교(정규교육 과정의 학교와 거의 유사한 특성화학교)나 서울시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등과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최근 도시형 대안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대안교육이 거창한 학교를 세우거나 더 이상 자신들만의 교육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언제라도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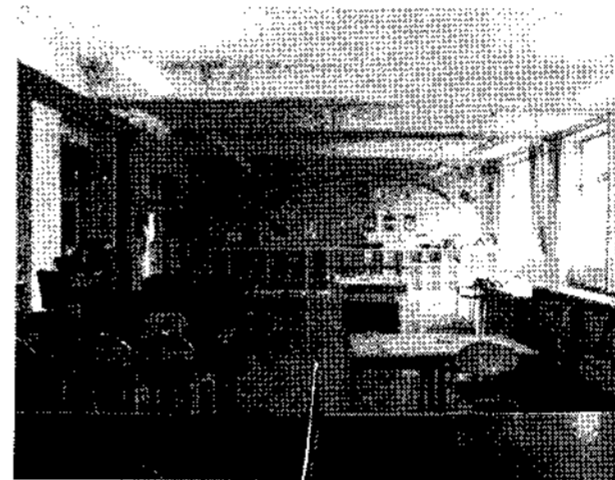
학교 자체나 교육과정을 부정하거나, 또 다른 입시를 위한 대안을 찾아 학교를 멀리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현



강사실(벌런티어실)



보호자실



플레이룸



대안학교존 진입부 현관

그림 8. 대안학교(프리스쿨)의 전용공간

재 우리도 다양한 이유로 단기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찾아간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또 다른 환경의 부적응에 다시 한번 중도 포기하는 사례를 종종 듣는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언제라도 되돌아올 수 있는 매개공간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 학교시설의 복합화 방안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는 상황에서 타카오야마학원의 기존 학교 내 유휴교실을 프리스쿨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 대안교육의 인식이 변화해 가는 시점에서 공간의 재배치 후 유휴교실을 일반학교와 함께 도심 속 대안학교로 운영할 수 있다는 시설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정진주 외, 일본 도쿄지역 프리스쿨사례의 시설이용현황 조사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5권 1호, 2008. 1
2. 교육인적자원부, 대안교육백서 1997~2007, 2007. 7